

# 프로농구 KCC 연고지, 전주서 부산으로...KBL 승인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에서 '제29기 제3차 KBL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주 KCC 이지스의 연고지 이전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프로농구 KCC가 연고지를 전북 전주에서 부산으로 옮긴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KCC의 연고지 이전을 승인했다. 대전 현대 프로농구단을 인수하면서 2001년 5월부터 전주를 연고지로 해온 KCC는 22년 만에 새로운 연고지를 갖게 됐다. KCC는 최근 전주시가 체육관 건립 약속을 7년째 지키지 않았다며 전주시의 흥대와 신뢰

문제를 들어 연고지 이전을 검토해왔다. 앞서 지난달 전주시는 KCC에 약속했던 홈 체육관 신축을 백지화하고 체육관 부지에 프로야구 2군 경기장을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KCC는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던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부지 소유권을 가진 전북대에서 2025년까지 체육관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KCC의 연고지 이전 검토 사실이 알

## 체육관 건립 약속 7년째 지키지 않아 결심 22년 만에 전주 떠나 새로운 연고지로 변경

려진 후 비판이 이어지자 전주시가 대안을 내놨지만 KCC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다. 부산은 2021년 6월 KT가 수원으로 떠난 지 2년 만에 다시 남자 프로농구단을 유치하게 됐다. 최형길 KCC 단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주시와는 같이 하기 힘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해 연고지 이전을 검토했다"며 "부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했다. 이와 연고지를 옮길 거면 큰 시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부산을 새로운 연고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2년 동안 응원하고 사랑해주신 전주 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 마음이 무척 아프다"며 "전주 팬들만큼 충성도가 높은 곳도 없었다.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KCC는 KT가 쓰던 사직체육관을 홈 구장으로 사용한다. 여자프로농구 부산 BNK와 함께 사직체육관을 홈 경기장으로 쓰게 된다. 최 단장은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BNK와 경기 일정도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

겠다"고 전했다. KCC가 연고지를 옮기면서 프로농구에는 호남 연고 팀이 없게 됐다. SK와 삼성(이상 서울), 소노(경기도 고양), KGC인삼공사(경기도 안양), KT(경기도 수원)가 수도권에 연고지를 뒀다. KCC(부산), LG(창원), 한국가스공사(대구), 현대모비스(울산)가 영남권을 연고지로 한다. DB는 강원도 원주가 연고지다. KCC는 기존 이승현, 허용, 라건아 등이 버티는 가운데 2022~2023시즌 이후 자유계약(Free Agent)으로 최준용을 영입하고 군 복무를 마친 송교창이 복귀하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최 단장은 "앞으로 부산에서 열심히 해서 농구 열기를 만들어보겠다. 많은 관심을 불러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2015년 KT 감독을 지냈던 전창진 KCC 감독은 8년 만에 부산에 재임성하게 됐다. 뉴시스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 달 앞둔 지난 24일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 평창아시아탁구선수권 내주 개막...신유빈 "국내 응원 설레"

한국 탁구 국가대표팀이 평창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각오를 밝혔다. 제26회 국제탁구연맹(ITTF)-아시아탁구연합(ATTU) 평창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9일 강원 평창군에 있는 평창동체육관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한국 대표팀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주세혁·오광현 남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선수 전원이 나와 실전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 한국대표팀은 남자 장우진, 박강현(한국수자원공사), 임종훈, 안재현(이상 한국거래소), 오준성(미래에셋증권), 여자 서효원(한국마사회), 전지희(미래에셋증권), 양하은(포스코인터내셔널), 이은혜(대한항공), 신유빈(대한항공)으로 구성됐다.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평창동에서 개최되는 2023 평창 제26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는 남자 23개국 95명, 여자 19개국 86명이 출전한다. 남녀 단·복식, 남녀 단체전, 혼합복식 등 7개 종목이 치러진다. 이번 대회에는 2024 파리올림픽 남녀 단체전(개인전 2장 포함)과 혼합복식 출전권 각 1장,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단체전) 출전권 남녀 각 10장씩이 배정됐다. 중국의 판진동, 마똥, 송잉사, 천명, 일본의 하리모토 토모카즈, 이토 미마 등 강자들이 평창을 찾는다. 한국 대표팀은 중국이 코로나19로 출전하지 않은 202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25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자단체전 금메달, 남자단식 금메달(이상수), 여자복식 금메달(전지희-신유빈), 여자단체전 은메달, 여자단식 은메달(신유빈), 남자복식 은메달(장우진-임종훈), 혼합복식 은메달(장우진-전지희), 남자단식 동메달(장우진) 등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냈다. 금메달 셋, 은메달 넷, 동메달 하나로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게다가 이번 대회는 폐막 열흘 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전조전 성격을 띠고 있다. 주세혁 남자대표팀 감독은 "이번 아시안선수권대회에 강팀들이 에이스 대동하고 모두 나오는 만큼 조금 고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며 "개인전은 복식에 기대가 큰 것을 알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훈련해왔다. 개인적으로 단식에도 조심스럽게 기대를 걸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남자 단식 세계 8위 장우진은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는 느낌으로 경기에 임하게 될 것 같다. 아시안게임도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게다가 우리 홈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관중들 응원에도 보답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오광현 여자대표팀 감독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번 대회는 아시안게임과 연결된다"며 "평창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100을 채워서, 만일 100이 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80은 넘게 채워서 자신감을 갖고 항저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자 단식 세계 9위 신유빈도 각오를 밝혔다. 신유빈은 "국내에서 더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설레는 느낌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지희 언니와의 복식도, 준홍 오빠와의 혼합복도 모두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33위 전지희는 "아시안게임은 복식만 나가게 됐는데, 단식에서의 컨디션이 몇 년 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최근에 유빈이하고 복식에서 성적을 많이 냈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것을 안다. 부담감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것에 최선을 다하면 지금까지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전주KCC, 부산으로...우범기 시장이 전주시 망쳐놓네요"

### 프로농구 KCC이지스, 연고지 이전 전주 KCC 팬들 분통 "치욕의 날"

프로농구팀 KCC이지스가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기로 했다. 전주 KCC 팬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오전 전주시청 자유계사판에는 KCC 이지스 연고지 이전과 관련한 비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전주KCC연고지 이전 정말 창피합니다. 진짜 무능함을 보여준 치욕적인 날이네요!' 라는 글을 쓴 이는 '우범기(전주시장) 참 일거리 같이 하시네요! 진짜 전주시를 망쳐놓네요! 전주KCC여서 응원하고 팬이었는데 행정을 못 하는걸로 인식된다'고 맹폭했다. 또 다른 글쓴이는 'KCC 연고지 이전 소식으로 농구 팬들은 정말 전주시의 무능함을



또 한번 느낀다. 나여도 KCC농구단이라면 전혀 지켜지지 않아 연고지 이전 언급은 당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제2군 야구단 건설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약속했던 농구장 건설은 그런적 없다는 식의 전주시의 행정 참 부끄럽다. 연고지 이전 소식으로 다시 한번 전주시 정책의 무능함을 느낀다"며 혀를 찼다. 전주시로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홈페이지는 항의성 글이 쇄도하면서 다운된 상태다. 한편, KCC이지스는 2001년부터 전주를 연고지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30일 한국농구연맹(KBL)은 서울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KCC이지스 농구단 연고지 이전 변경을 승인, 부산으로 옮기게 됐다. 당초 KCC이지스는 2015~2016시즌이 끝난 뒤 수원 연고지 이전을 적극 추진했으나 전주시가 2023년 12월 체육관 신축 등을 약속하면서 수원 연고지 이전을 백지화시키고 전주 잔류를 택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가 전북대와의 사업 등을 이유로 2년 뒤 전주실내체육관 대신 군산 체육관을 이용해 달라고 KCC 농구단에 요청하면서 연고지가 변경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태극마크가 외면한 '득점 1위' 주민규... "오로지 울산 우승"

프로축구 K리그1(1부) 득점부분 공동 선두에 있는 대표 공격수 주민규(울산)는 이번에도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이 9월 유럽 원정 A매치 2연전(웨일스·사우디아라비아)을 앞두고 발표한 25인 명단에 주민규의 이름은 없었다. K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최근 몇 해 동안 기록 없는 활약을 펼쳤지만 유독 대표팀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주민규는 제주 유니াই티드 시절인 2021년 22골을 터뜨리며 K리그1 득점왕을 차지했고, 지난해에도 17골로 득점 2위에 올랐다. 올해 새롭게 울산 유니폼을 입고 13골을 기록 중으로 티아고(13골·대전)와 함께 득점부분 공동 선두에 자리했다. 9월 A매치 명단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에는 FC서울전에서 2골을 터뜨리며 골 감각을 끌어올렸다. 앞서 주민규는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간다고 생각하며 (홍명보)감독님 밑에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 오로지 우승을 하고 싶다. 팀과 우승에만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다짐했다.

## 류현진의 '위닝샷'은 바로 커브...느린 만큼 큰 움직임

커브 평균속도 112km, 최저속 104km...커브 평균 우타자 기준 수평 이동 133cm, 낙폭 182.88cm

100마일(161km)을 넘는 강속구가 판을 치는 메이저리그(MLB)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느린 커브가 조명을 받고 있다. 류현진은 올해 5경기에 선발 등판해 3승 1패 평균자책점 2.25를 기록했다. 지난해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돌아와 토론토의 선발진을 이끌고 있다. 토론토는 류현진이 등판한 5경기에서 4승을 수확했다. 류현진은 다들 2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쿼어스필드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36세의 적지 않은 나이, 세 차례의 팔꿈치 수술 경력 때문에 류현진이 과거와 같은 구위를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였다. 류현진은 복귀 후 구속보다 제구력에 더욱 신경을 썼고, 특유의 완급조절 피칭으로 타자를 상대했다. 류현진은 우타자를 상대할 때 포심 패스트볼과 체인지업과 함께 커브를 주무기로 사용했고, 좌타자를 상대할 때는 포심과 컷패스트볼, 커브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흔들고 있다. 커브는 류현진이 좌타자와 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던지는 주종이다. 메이저리그에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베이스볼 사반트에 따르면 류현진이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은 포심으로 44.7%로 나타났다. 체인지업이 25.3%, 커브가 18.6%, 컷패스트볼이 11.3%이다. 커브의 구사율은 낮지만 가장 결정적일 때



사용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류현진 커브의 평균구속은 69.6마일(112km), 최고구속은 72.9마일(117km)이다. 최저구속은 64.6마일(104km)로 드러났다. 60마일대 중반의 커브는 너클볼의 속도와 비슷하다. 커브가 느린 만큼 무브먼트는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현진의 커브는 평균적으로 우타자 기준 13인치(33cm) 수평 이동하고, 낙폭은 72인치(182.88cm)다. 메이저리그 커브 평균 수평 이동이 9인치(22.86cm), 낙폭은 54인치(137.16cm)인

것에 비하면 큰 움직임이다. 마운드의 높이는 30cm 안팎, 류현진의 커브 평균 릴리스포인트는 6.1피트(186cm)여서 그의 커브는 포수 쪽으로 가다가 땅으로 가라앉는다. 이제 류현진이 얼마나 빠른 공을 던질지에 대한 기대보다 커브가 얼마나 느릴지, 그 커브로 얼마나 많은 헛스윙과 범타를 유도할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마운드로 복귀한 류현진은 제구력과 완급조절로 메이저리그에서 여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